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전문공보관 이영규

전화 051-606-4164

보도자료
2022. 9. 7.(수)

제 목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파티를 벌인 외국인들의 마약류 밀수범행 적발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부산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부산·경남지역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파티를 열고 마약류를 집단으로 투약*한 외국인들이 국제우편물을 이용하여 마약(케타민1) 1,483g)을 밀수한 사실을 밝혀내어 '22. 9. 7. 기소(구속 1명, 불구속 2명)하였음**

* '22. 7. 3. 「노래방서 ‘마약파티’...불법체류 베트남인 33명 검거」 등 언론보도
- 이를 통해 케타민 약 1,483g(약 15,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압수하여 마약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

-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케타민 밀수사건 수사 중 밀수 혐의자가 대포폰을 쓰고 잠적하였으나, 밀수 혐의자가 외국인으로 추정되고, **마약류 범행이 ‘밀수→유통→투약’으로 이어지는 점에 착안하여, 경찰에서 송치된 유사 시기 외국인들의 마약류 유통 사건 기록을 전수조사하여 위 언론보도된 노래방 집단 마약 투약 사건으로 검거된 외국인들이 조직적으로 마약류 밀수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냄**

- 향후에도 부산지검은 ‘마약류 유통’ 범행을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시킨 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취지를 살려 마약류 밀수·유통범행에 대한 유기적인 수사를 통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 및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음**

※ 이외에도 부산지방검찰청은 '22. 1. ~ 8. 마약류 밀수사범에 대한 직접 수사를 통해 밀수사범 8명을 단속하여 기소(구속 6명)하였음

1) 소위 ‘강간용 마약’이라고 불리며, 한국에서는 인체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의 일종

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 A○○(31세,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구속
 - B○○(24세,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별건 구속
 - C○○(여, 21세, 베트남 국적), 불구속
- 성명불상의 해외 발송책 등과 공모하여, '22. 6. 27.경 독일에서 발송되어 '22. 7. 9.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국제우편화물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초콜릿 제품으로 위장한 케타민 약 1,483g(소매가 약 3억 7,000만 원)을 밀수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II

수사 경과

- '22. 7. 15. 인천공항 세관, 케타민 1,483g 밀수화물 단속 / 검찰 직접 수사 착수 및 케타민 압수
 - ※ 「첨부 1」 압수물 사진 참조
- '22. 7. 20. 케타민 은닉 밀수화물 수취인, 차명폰(속칭 '대포폰')을 끄고 잠적
- '22. 8. 유사시기 외국인들의 마약류 유통사건 기록 전수조사를 통한 성명불상의 마약 밀수사범 특정
 - ※ 구체적 적발 경위는 아래 Ⅲ과 같음
- '22. 8. 29. A 구속
- '22. 9. 7. A 구속 기소, B(별건 구속)·C 불구속 기소

III

피고인들의 밀수범행 적발 경위

- 휴대전화(대포폰)를 끄고 잠적한 밀수 혐의자가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단서가 발견된 점에 착안하여, 유사시기 외국인들의 마약류 유통사건 기록을 전수조사하여 '외국인 전용 노래방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으로 검거된 베트남인들의 마약 공급처가 본건 밀수 사범과 연계된 단서(동일 휴대전화 번호 통화사실)를 확인

《외국인 전용 노래방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

- ▲ B·C를 포함한 33명의 베트남인들이 '22. 7. 2~3.경 창원 소재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하여 마약 환각파티를 벌이던 중 부산경찰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의하여 검거된 사건
- ※ '22. 7. 3. 「노래방서 '마약파티'...불법체류 베트남인 33명 검거」등 언론보도
- ▲ 부산지방검찰청은 '22. 7. 29. 마약류 수수 및 투약 혐의로 B를 구속 기소, C를 불구속 기소

- 검찰은 송치받은 단순 마약류 유통·투약 사건에서 신원불상의 마약 밀수조직과의 연결 고리를 찾아내어, 해당 기록 재검토, 통화내역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밀수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 특정

IV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

1. 유사시기 동종 마약류 유통사건 기록 전수조사를 통해 자칫 암장될 뻔한 본건 밀수사범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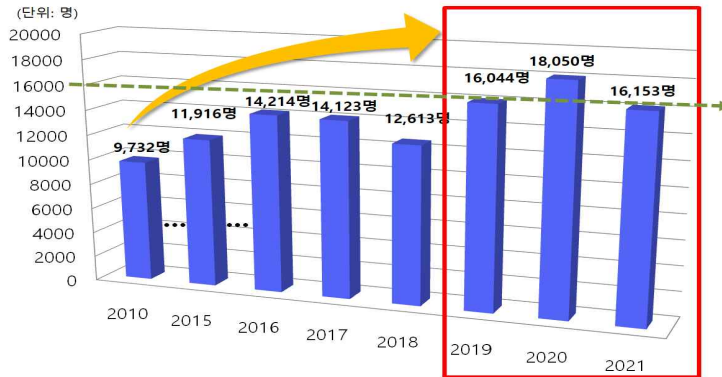
- 이 사건은 마약류 밀수 범행이 '밀수 → 유통 → 투약'으로 이어지는 점에 착안하여, 유사시기 외국인들의 마약류 유통·투약 사건 기록 전수조사를 통해 대포폰을 끄고 잠적한 성명불상의 마약 밀수사범을 특정하여 자칫 암장될 뻔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조직적인 마약류 밀수·유통·투약 범행의 전모를 밝혀냄

2. 마약류 밀수와 유통 범행에 대한 유기적 수사 필요성

- 이 사건 사례에서 보듯이 마약류 밀수·유통·투약 범행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밀수 사범을 검거할 경우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 받은 판매·중개상까지 신속하게 추적하여 일망타진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유통 사범 수사 과정에서 밀수 범행이 밝혀질 수 있음
- 이와 같이 마약류 밀수와 유통 범행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마약류 밀수·유통 범행에 대한 유기적 수사가 필요한데, '21. 1.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직접 수사가 제한되어 마약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음

- 마약류사범은 증가 추세였다가 2021년에 이르러 전년 대비 10.5% 감소

【마약류사범 적발 추이】



<출처 : 대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

※ 2021년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적발 인원은 4,852명으로 전년도(5,630명) 대비 약 13.8% 감소

- 부산지검은 마약류 유통 범행을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시킨 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취지를 살려 마약류 밀수·유통범행에 대한 유기적인 수사를 통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 및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음

※ 현행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는 마약류 밀수범행 외 유통 단독 범행은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시행 예정 (2022. 9. 10.)인 개정 법령에는 유통 범행도 그 범위에 포함됨

V

참고사항

- 이외에도 부산지검은 '22. 3. 국제 마약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멕시코로부터 필로폰 약 902kg을 수입한 밀수사범을 구속기소('22. 9. 2. 징역 30년 선고)하는 등 '22. 1. ~ 8. 마약류 밀수사범에 대한 직접수사를 통해 밀수사범 8명을 단속하여 기소(구속 6명)하였음

※ 상세 내용은 「첨부 2」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및 처분내역' 참조

<첨부 1. 압수물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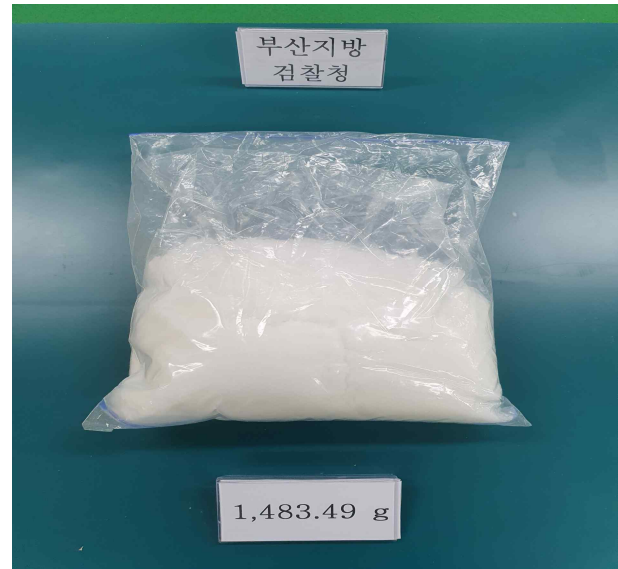
【케타민 포장 박스】



【박스 내부 모습】



【케타민을 은닉한 빈 샴푸통】



【압수한 케타민 총량 약 1,483.49g】

<첨부 2.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및 처분내역>

순번	피고인	마약류 발송국	공소사실 요지	처분
1	D(38세) 호주 국적	멕시코	【필로폰 약 902kg 밀수 등】 · '19. 12., '20. 7. 총 2회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헬리컬기어 20개에 필로폰 약 902kg을 은닉하여 수입하고, '21. 1., '21. 4. 총 2회에 걸쳐 헬리컬기어 총 11개에 필로폰 약 498kg을 은닉하여 호주로 수출함 ※ E는 수입 범행으로 '21. 8. 3. 구속 기소되어 '22. 1. 21.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임	구속기소 ('22. 3. 17.) ※ 1심 선고 : 징역 30년 ('22. 9. 2.)
2	E(36세)			불구속기소 ('22. 3. 17.) ※ 1심 선고 : 징역 5년 ('22. 9. 2.)
3	F(30세)	미국	【필로폰 약 2.74kg 밀수】 · '22. 2. ~ 3. 총 2회에 걸쳐 미국發 국제특급 우편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합계 2.74kg을 수입함	구속기소 ('22. 4. 4.)
4	G(40세)			구속기소 ('22. 5. 2.)
5	H(30세)			구속기소 ('22. 5. 17.)
6	I(38세)	영국	【케타민 약 55.55g 밀수】 · '21. 6. 영국發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하여 케타민 약 55.55g을 수입함	구속기소 ('22. 4. 15.)
7	J(30세)			불구속기소 ('22. 4. 15.)
8	K(69세)	태국	【필로폰 약 1.4kg 밀수】 · '18. 7. 국내 운반책으로 하여금 태국으로 출국하여 해외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아 김해공항을 통하여 입국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4kg을 수입함	구속기소 ('22. 3. 23.)